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80

1 국제교류원 칼럼

나가사키바나(長崎鼻)로의 모험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영국 출신)

2 지사 관련 새소식

「2023 년도 사쓰마 스튜던트 파견 사업」 참가자를 격려했습니다 (7 월 4 일)

「제 30 회 가고시마현 청소년국제협력체험사업」 참가 단원들에게 참가 보고를 받았습니 다 (8 월 1 일)

남부 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125 주년 기념축하회 준비위원장이 예방하였습니다 (8 월 23 일)

3 가고시마 국제교류

2023 년도 가고시마현 해외기술연수원 3 명이 가고시마에 왔습니 다!

4 가고시마 뉴스

오하라마쓰리 축제가 개최됩니다

●나가사키바나(長崎鼻)로의 모험●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영국 출신)

작년 8 월, 가고시마에 온 이후로 저는 가고시마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시로야마 전망대에서 사쿠라지마를 바라보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마즈 가문 별장의 센간엔에서 잠보모찌를 먹었고, 흥미로운 수중 세계를 소개하는 가고시마 수족관의 돌고래 쇼에 감동을 받으며 지난 1 년간 시내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모험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당일치기로 갈 만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쓰마 반도의 최남단인 나가사키바나입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JR 이부스키마쿠라자키선을 타고 갔지만, 차가 있었어도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쾌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문 너머의 긴코만을 바라보며 가고시마의 절경을 즐기는 철도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어폰을 꽂고 최근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시티팝을 이번 철도 여행의 배경 음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부스키마쿠라자키선의
경치

드디어 나가사키바나에 가장 가까운 역인 니시오야마역에 내렸습니다. 니시오야마역은 보통의 역과는 다릅니다. 바로 JR 일본 최남단의 역이죠!

사쓰마의 후지산으로도 불리는 가이몬다케를 배경으로 하는 이곳은 의외로 소박한 장소였습니다. 하나의 선로, 세 개의 의자만이 있는 이 역은 한 번 열차를 놓치면 2~3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야말로 니시오야마역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 앞에는 「행복의 종」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이부스키를 대표하는 유채꽃의 노란빛을 띠는 우체통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의 우체통 또한 「행복을 전하는 우체통」으로 불리는 듯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니시오야마역에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행복의 종을 울린 후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보는 것은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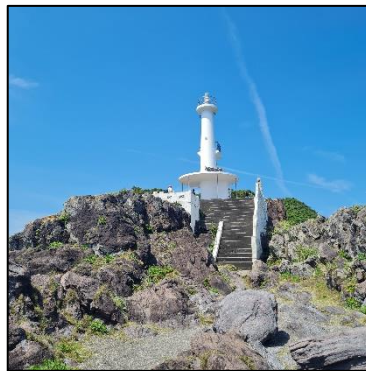
JR 일본 최남단 니시오야마역



가이몬다케

역에서 걸어서 1 시간 정도면 나가사키바나에 갈 수 있습니다. 발 사이를 거닐며 저는 몇 번이나 멈춰 서서 가이몬다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고구마를 사쓰마(가고시마현 서반부)에 전파한 마에다 리에몬을 기리는 듯코 신사에도 잠깐 들렀습니다.

나가사키바나에 도착하니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화 같은 등대 뒤로는 암초가 늘어서 있어 원시 지구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화산 지역이라고 알려진 이곳에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조수 웅덩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곳에서 탄생했을까 하는 공상에 잠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가사키바나 등대



등대 뒤로 늘어서 있는 암초

그런 다음, 암초 끝에 서서 수평선까지 이어진 바다를 보고 있다 보니 어딘가 이상한 것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야쿠시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1월, 고속선을 타고 야쿠시마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거리가 꽤 있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본토에서 야쿠시마가 보일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한 군데를 더 둘러 보기로 하였습니다. 나가사키바나 등대 옆으로는 특색 있는 류구(용궁) 신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용궁 전설에 나오는 용궁성을 모티브로 하여 비늘을 연상케 하는 건축과 주홍빛을 띠는 지붕이 박력 넘치는 곳입니다.

이번 여름, 모험을 한껏 즐겼습니다. 여러분도 풍광명미한 경관에 매력적인 관광 명소가 가득한 나가사키바나로 모험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떠세요?



나가사키바나에서 보이는 섬들



류구 신사

지사 관련 새소식

●「2023 년도 사쓰마 스튜던트 파견 사업」 참가자를 격려하였습니다 (7 월 4 일)●

「2023 년도 사쓰마 스튜던트 파견 사업」에 참가하는 파견 고등학생을 격려하였습니다.

참가자는 이번이 첫 영국 방문으로 긴장도 되지만,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의 프로그램 참가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지사는 4년 만의 현지 개최인 만큼 현지에서 영국 고등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흡수해 주길 바라며, 영국 사람들에게 가고시마를 PR 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이 영국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30 회 가고시마현 청소년국제협력체험사업」 참가 단원들에게 참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8월 1일)●

올해 7월 23일에서 30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협력체험사업에 참가한 현내
중고등학생 15명이 참가 보고를 위해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참가 단원들은 「이문화를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실행할 수 있었다」, 「교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지사는 홈스테이 및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현지 문화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참가 단원들이 이번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가고시마와 일본을 위해서 활약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125 주년 기념축하회 준비위원장이 예방하였습니다 (8 월 23 일)●

지난 8 월 23 일, 남부 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125 주년 기념축하회의 이와시타 준비위원장이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내년 10 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남부 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창립 125 주년 기념축하회」의 취지서를 전달하였으며, 축하회의 참가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지사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상황 등에 대해 물었으며,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본 현 출신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 올린 교류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와의 교류 및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가고시마 국제교류

●2023 년도 가고시마현 해외기술연수원 3 명이 가고시마에 왔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1985 년도부터 현내에서 전문 기술을 배우는 해외기술연수원을 수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 개국 245 명이 가고시마를 찾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9 월 6 일에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중국에서 각 1 명의 금년도 연수원이 가고시마를 찾았으며, 7 일에는 지사를 예방하여 도착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3 명은 각각 국제 무역과 익스테리어 디자인, 소화기 내시경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들 3 명은 10 월 말까지 가노야시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농촌연수센터에서 일본어 연수를 받은 후, 11 월부터 내년 2 월까지 가고시마 시내의 각 연수 기관에서 각각의 전문 분야에 관한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금년도 해외기술연수원들의 목표와 마음가짐을 들어 볼까요?

후미오카 타티아나 유미(브라질, 유미바무역(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후미오카 타티아나 유미입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났으며, 일본계 3 세로 올해 27 살입니다. 조부모님께서 가고시마 아마미오시마의 우켄손 출신입니다.

2020 년 상파울루에서 국제 관계의 대학을 졸업한 후, 국제 물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미바무역(주)의 기술연수원입니다.

조부모님의 고향에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고시마에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가고시마의 문화와 명물에 대해 알고 싶고, 일본의 국제 무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마시타 쓰치다 낸시 사오리(파라과이, (주)도조설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야마시타 쓰치다 낸시 사오리입니다. 파라과이의 일본계 이주지에서 왔습니다.

저는 파라과이에서 건축 설계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조부모님의 출신지인 가고시마에서 실기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직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고, 가고시마의 매력적인 장소에도 가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쌓아 나갈 새로운 경험들이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樂安君(중국, 가고시마대학 의학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樂安君입니다. 올해 34 살로, 중국 쑤저우에서 왔습니다. 장수성에 있는 쑤저우시 상청인민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소화기과 의사입니다.

저는 가고시마대학 의학부에서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이 첫 일본 방문으로, 가고시마에 배우러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울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1 월부터 가고시마대학 의학부에서 내시경 검사를 공부할 예정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하라마쓰리 축제가 개최됩니다●

매년 11 월 2 일과 3 일에 덴몬칸 일대에서 진행되는 오하라마쓰리 축제는 1949 년부터 시작된 미나미큐슈의 최대 축제입니다.

가고시마를 대표하는 민요인 오하라부시와 가고시마 한야부시, 시부야 온도에 맞춰 춤을 추는 소오도리(総踊り)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요마쓰리(전야제)에서는 소오도리, 오고조 북 경연이 진행되며, 혼마쓰리(본 축제)에서는 소오도리, 오고조 북 경연, 취주 악대의 행진, 댄스 오하라 21 등이 진행되어 덴몬칸 일대가 활기를 띠니다.

그룹별로形形色색의 의상을 차려입은 소오도리는 단연 압권입니다! 또한 오하라마쓰리 축제 전날까지 야간 조명을 비춘 꽃 전차가 운행되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오고조」는 가고시마의 방언으로 여성을 의미하며,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쓰마 오고조의 북과 피리 연주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공익사단법인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제 72 회 오하라마쓰리 축제 개최 내용】

○ 11 월 2 일(목) 요마쓰리(전야제)

소오도리, 오고조 북 경연

○ 11 월 3 일(금) 혼마쓰리(본 축제)

1 부: 소오도리, 오고조 북 경연

2 부: 취주 악대 행진, 도쿄 디즈니리조트 40 주년 스페셜 퍼레이드

3 부: 소오도리, 오고조 북 경연

4 부: 댄스 타임 오하라 21

개최 일시

11 월 2 일(목) 18:5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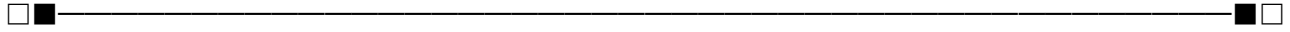
11 월 3 일(금) 10:20~15:25

개최 장소

가고시마시 덴몬칸 일대(다카미바바 교차점~이즈로~산바시도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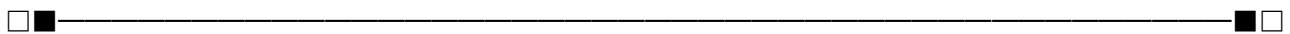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이번 달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가고시마현청 메일 매거진은 가고시마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야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